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웨이브일렉트로(09527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나이스평가정보(주) 작성자 류치선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웨이브일렉트로(095270)

탐색기·유도조종 핵심기술로 K-방산 정밀타격 밸류체인을 잇는 전자부품 전문기업

기업정보(2026.10.20 기준)

대표자	박천석, 박병래
설립일자	1999.10
상장일자	2007.09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주요제품	정밀기기 제조업 이동통신중계기용 전력증폭기

시세정보(2026.10.20 기준)

현재가(원)	4,95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712
발행주식수	14,372,406
52주 최고가(원)	10,600
52주 최저가(원)	3,320
외국인지분율	6.17
주요주주	박천석

■ 통신장비에서 정밀타격 방산부품으로 확장한 기술기업

웨이브일렉트로닉스(이하 동사, 종목명 웨이브일렉트로)는 1999년 설립되어 이동통신 기지국·중계기용 전력증폭기와 RF 모듈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2007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다. 2009년 4G LTE 스마트기지국용 RRH 개발을 완료하고 일본 KDDI에 Rev.A RRH 공급을 시작했으며, 2015년 MTI 방산사업부문 인수를 통해 유도무기 핵심부품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이후 2021년 FMM 사업을 매각하고 2022년 군용 전원공급장치 업체 아데나를 편입하면서 사업축을 통신에서 방산 중심으로 재편한 것으로 파악된다.

■ 탐색기·유도조종·전원계통을 아우르는 방산 포트폴리오

동사의 방산 핵심제품은 정밀타격 유도무기용 탐색기 신호처리기, 유도조종장치 및 점검장비이며, 고속 영상처리와 표적 탐지·추적 알고리즘, 전자신호 처리 및 제어 역량을 기반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궁·비궁·해궁·천검·천궁-II·L-SAM 등 다수 유도무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속회사 아데나는 전원공급장치, 전원제어장치, 전원부품을 유도무기와 레이더·통신·항공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 연구개발 이후 장기간 양산·배치·정비로 이어지는 방산사업 구조가 축적된 공급 이력과 결합되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 K-방산 수출 확대와 차세대 사업을 성장축으로 확보

동사는 2021년 이후 방산부문의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주요 고객사의 천궁-II 중동 수출 확대와 해궁 말레이시아 수출, 비궁 미국 진출 가능성, L-SAM 해외사업 확대를 중장기 성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천궁3·L-SAM2·공대공 유도무기와 위성탑재체 등 신규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정밀타격 부품에서 항공·우주 전자장비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통신부문은 기존 RF 기술기반을 유지하면서 향후 O-RAN 및 6G 투자 재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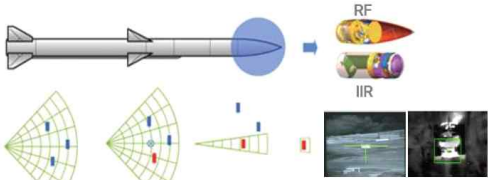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779.8	31.78	23.5	3.02	6.1	0.78	1.04	0.79	46.03	44	4,553	114.70	1.12
2024	780.4	0.08	18.5	2.37	-64.3	-8.24	-11.58	-7.31	71.13	-424	4,042	N/A	0.95
2025	805.3	3.19	-16.4	-2.04	11.2	1.39	2.79	1.43	93.92	100	4,249	45.17	1.06

기업경쟁력

검증된 유도무기 공급 이력	- 현공·비공·해공·천검·천공-II·L-SAM 등 다수 체계 참여 - 소형 유도무기에서 중·장거리 방공체계로 적용영역 확대 - 개발단계 채택 이후 양산·정비로 이어지는 장기 공급기반 확보
탐색·유도·전원을 연결하는 기술구조	- IIR 영상처리 및 표적 탐지·추적 알고리즘 확보 - 유도조종 신호처리와 전원·신호 입출력 제어기술 보유 - 아데나 편입을 통한 군용 전원공급·제어장치 포트폴리오 확보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탐색기·유도조종장치	- 적외선·RF 센서정보의 고속 처리와 표적 탐지·추적, 유도탄 조종명령 연산을 수행하는 정밀타격 핵심 전자장비 설계·공급	 탐색/검출 분석/선택 포착 추적 정밀 타격  탐색기신호처리기 유도조종장치 점검장비
군용 전원·전자장비	- 유도무기·레이더·항공·통신체계용 맞춤형 전원공급장치와 제어장치, DC-DC 모듈 및 고신뢰 전력부품 공급	

시장경쟁력

다수 유도무기 공급 레퍼런스	- 현공·비공·해공·천검·천공-II·L-SAM 등 대전차·함대공·지대공 체계의 탐색기 신호처리기 및 유도조종장치 개발·양산 경험을 축적하며 국내 유도무기 핵심부품 시장 내 공급 레퍼런스 확보
주요 체계업체와의 장기 개발·양산 기반	- 주요 방산 체계업체와 개발단계부터 탐색기·유도전자 핵심부품을 공동 개발하고, 개발 완료 이후 양산·정비로 이어지는 장기 공급구조를 구축해 신규 업체 대비 높은 진입장벽 확보
탐색·유도·전원으로 확장된 제품 대응력	- 영상·RF 기반 표적 탐지·추적과 유도조종 신호처리 기술에 아데나의 군용 전원공급·제어장치를 더해 유도무기·레이더·항공 등 다양한 방산 플랫폼에 대응 가능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I. 기업 현황

유도무기 핵심 전자부품을 축으로 방산 성장 본격화

동사는 탐색기 신호처리기와 유도조종장치, 군용 전원공급장치를 중심으로 방산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궁·비궁·해궁·천궁-II·L-SAM 등 다수 체계의 개발·양산 경험과 장기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K-방산 수출 확대에 연동되는 성장구조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업 개요 및 주요 연혁

동사는 1999년 유·무선 통신장비 기업으로 설립되어 2007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으며, 2009년 일본 KDDI에 4G LTE RRH를 공급하며 통신 기술력을 축적하였다. 2015년 MTI 방산사업부문 인수를 계기로 유도무기용 탐색기 신호처리기와 유도조종장치 사업에 진출했고, 비궁 등 수출 유도무기 공급망에 참여하였다. 2021년 FMM 사업을 매각하고 2022년 아테나를 인수해 군용 전원공급장치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했으며, 천궁 계열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통신 중심 사업구조에서 방산 중심 포트폴리오로 전환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에는 L-SAM, 공대공 유도무기 및 위성탐재체 개발사업으로 기술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림 1. 주요 연혁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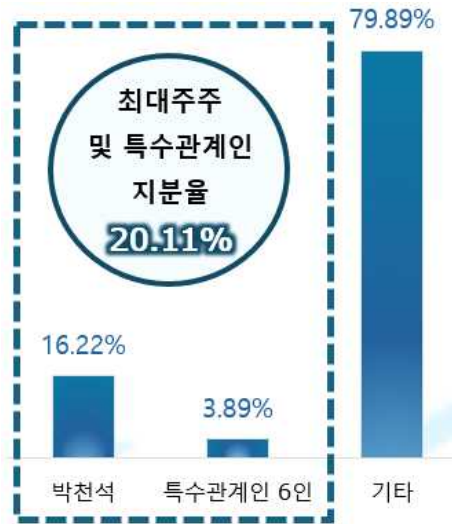
■ 대표이사 주요 이력

동사는 박천석·박병래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박천석 대표는 창립 이후 통신장비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방산사업 진출과 사업구조 재편을 주도해 왔으며, 장기간 축적한 전자·통신 분야의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유도무기 핵심부품 사업을 확대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박병래 대표는 동사 영업부문에서 주요 고객사 대응과 방산사업 확대를 담당할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경영 전면에 참여해 수출사업 및 신규 방산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개발 중심의 기존 경영역량과 고객·영업 중심의 사업개발 역량을 결합해 K-방산 수출 확대와 차세대 유도무기 사업에 대응하는 경영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 주주 현황

동사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최대주주 박천석은 보통주 2,331,539주, 지분율 16.22%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으로 이진희, 박재원, 박성길, 윤정상, 박상훈, 이순환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인의 합산 보유주식은 2,889,995주로 지분율은 20.11%로 확인된다. 최대주주가 장기간 경영을 이어오고 임원 및 관계자의 지분이 결합된 구조로 핵심 사업의 장기 개발과 양산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주주 현황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6.08.),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사업 분야

[방산부문]

동사의 방산사업은 정밀타격 유도무기용 탐색기 신호처리기, 유도조종장치와 점검장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탐색기 신호처리기는 RF 및 IIR 센서에서 획득한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해 표적을 탐색·검출하고 분석·선택한 뒤 포착·추적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동사는 적외선 영상 전처리, 영상 분할·업스케일링·보간, 블록 매칭과 추적 필터링 등의 알고리즘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유도조종장치는 탐색기 운용·통제와 표적탐지 전자신호 처리, 전원분배와 신호 입출력 제어 및 알고리즘 연산을 수행해 유도탄의 비행 제어를 지원한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현궁·비궁·해궁·천검·천궁-II·L-SAM 등 대전차·지대함·함대공·공대지·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에 참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드론 대응 유도무기와 공대공 유도무기, 천궁3 및 L-SAM2 관련 개발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방산사업은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된 뒤 양산·배치·정비가 장기간 이어지는 구조로, 개발단계에서 확보한 채택 이력과 품질 신뢰성이 후속 양산의 중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사는 개발단계에서 고객 요구에 맞춰 영상·신호처리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공동으로 최적화하고, 양산단계에서는 동일 체계의 반복 공급과 정비 대응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유도무기의 탐색·추적부터 유도조종까지 연속된 기능에 참여한다는 점은 단일 부품 공급보다 고객 체계와의 기술적 결합도를 높이는 요소로 판단된다.

[방산 전원·전자장비 부문]

종속회사 아데나는 방산 분야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원공급장치, 전원제어장치 및 전원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전원공급장치는 능동위상배열 전원회로조립체, 전원회로조립체, 전원분배조립체와 직·교류 배전반 등으로 구성되고, 전원제어장치는 전원제어패널, 전원절체기, 자동전압조정장치, 충전기와 배터리보호장치 등을 포함한다. 전용 DC-DC 모듈, 통신변환모듈, 위상검출모듈과 고압용 트랜스·인덕터류 등 전원부품까지 포트폴리오를 갖춰 유도무기뿐 아니라 레이더, 통신, 항공 분야로 적용처를 넓히고 있다.

천궁·천궁-II·해궁·L-SAM 계열과 대포병탐지, 국지방공, 항공관제, TMMR 및 전자전장비 등 다수 사업의 공급 경험을 보유해 동사 본체의 탐색·유도전자 기술과 결합된 방산 전자부품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있다. 고신뢰성 전원은 유도무기와 레이더의 안정적 동작을 좌우하는 기반 장치로, 체계별 전압·부하·환경조건에 맞춘 설계와 시험 경험이 고객 전환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통신 및 기타부문]

통신부문은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에 적용되는 고출력 전력증폭기, RF 모듈, RRH 및 관련 제어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동사는 DPD 전력증폭기와 Digital IQ 방식의 중계기, 다중대역 제어기술 등을 축적했고 통신사업자의 BMT와 시스템업체의 장비개발 과정에 대응하는 주문형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5G 투자 둔화로 통신부문의 상대적 비중은 낮아졌으나, O-RAN 구조와 6G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장비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될 경우 기존 RF 설계와 전력증폭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타부문에서는 아게이트를 통해 의료기기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전체 성장전략에서는 방산 및 통신에 비해 보조적인 사업으로 판단된다.

■ 최근 및 향후 사업동향

동사의 최근 사업동향은 국내 양산 확대와 고객사의 해외수출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단계로 요약된다. 천궁-II의 UAE·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공급 확대, 해궁의 말레이시아 진출, 비궁의 미국시장 진입 추진과 L-SAM 해외사업이 주요 성장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해궁은 2026년 4월 말레이시아와 첫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비궁은 2024년 미국 FCT 최종시험에서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키며 미국 획득사업 진입을 위한 성능검증을 마쳤다. LIG D&A도 2026년 UAE UMEX에서 L-SAM을 전시하며 중동 통합방공시장 확대를 추진해 동사의 최종 수요처가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다.

향후에는 기존 체계의 반복양산과 함께 천궁3·L-SAM2·대드론·공대공·우주항공 사업의 개발→양산 전환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병래 대표는 2026년 9월 인터뷰에서 천궁3과 L-SAM2 개발, 대드론 요격체계용 근접센서·신관, 위성 SAR 및 통신탐재체 사업 참여를 설명했다. 동사는 2026년 8월 LIG D&A 수출사업이익공유제 최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돼 탐색기·유도조종장치 공급 기술과 수출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주요 고객사와 공동개발이 차세대 무기체계로 이어질 경우 개발 파이프라인이 중장기 양산 기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주요 사업 분야

사업부문	주요 품목	주요 사업 내용
방산	탐색기 신호처리기, 유도조종장치, 점검장비	- 정밀타격 유도무기의 표적 탐지·추적 및 유도제어 전자장비 개발·공급
방산 전원·전자	전원공급장치, 전원제어장치, 전원부품	- 아데나를 통한 유도무기·레이더·통신·항공용 고신뢰 전력전자장비 공급
통신	전력증폭기, RF 모듈, RRH, 중계기	- 이동통신 기지국·중계기용 RF 장비 및 제어솔루션 개발·공급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 시장 동향

정밀유도무기 고도화와 수출 확대로 성장하는 핵심 전자부품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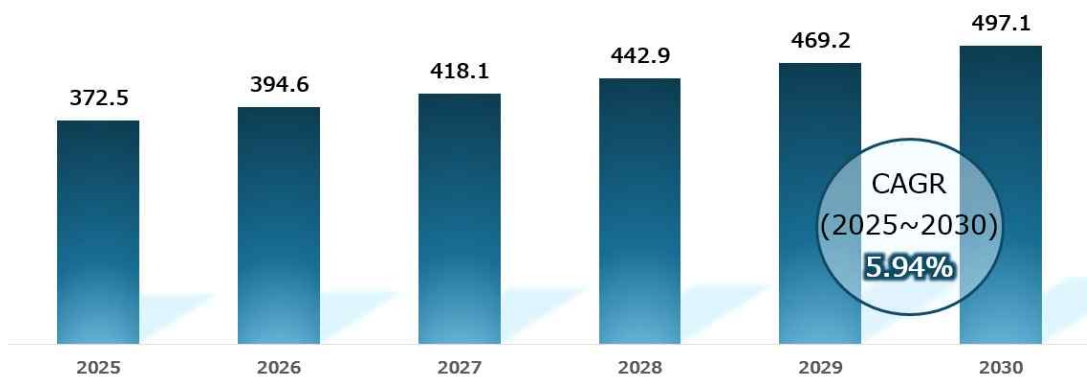
동사의 목표시장인 글로벌 정밀유도무기 및 미사일 탐색기 시장은 국방 현대화와 정밀타격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다중모드 탐색기와 고도화된 유도·항법 기술의 채택 확대가 동사의 신호 처리·유도조종 기술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글로벌 정밀유도무기 및 미사일 탐색기 시장의 견조한 성장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정밀유도무기 시장은 2025년 372.5억 달러에서 연평균 5.94% 성장하여 2030년 497.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은 2025년 약 25.5%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제시된다.

그림 3. 글로벌 정밀유도무기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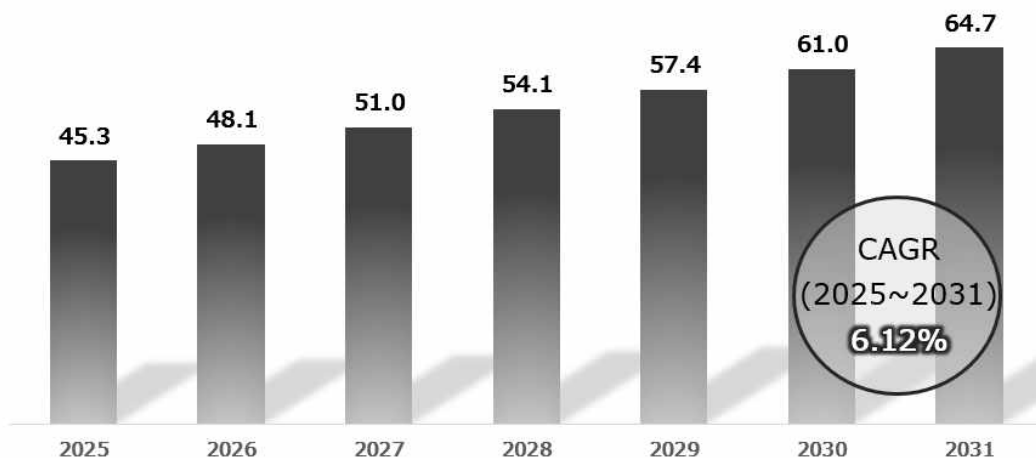


자료: MarketsandMarkets(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TechSci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미사일 탐색기 시장은 2025년 45.3억 달러에서 연평균 6.12% 성장해 2031년 64.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탐색기는 적외선·레이더·레이저 등을 이용해 종말 단계에서 표적을 식별·추적하는 핵심 유도 구성품으로, 정밀타격체계 고도화와 함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 글로벌 미사일 탐색기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자료: TechSci Research(202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시장 구조 및 산업동향

국내 유도무기 산업은 방위사업청과 군의 중장기 전력증강 계획을 기반으로 체계종합업체와 전문 부품업체가 장기간 개발·시험·양산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탐색기 신호처리기와 유도조종장치 등 핵심 구성품은 체계개발 단계에서 요구 성능과 환경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후 양산·정비로 이어져 개발 이력과 품질 신뢰성이 주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동사는 LIG D&A를 주요 고객으로 현궁·비궁·해궁·천궁-II·L-SAM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체계업체에 공급한 부품이 수출용 완성 무기체계에 적용될 수 있어 간접적인 수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천궁-II와 해궁의 해외수출 확대에 따라 국내 부품 공급망의 최종 수요처도 중동·동남아로 확장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정밀타격 고도화와 무인체계 확산에 따라 탐색기의 다중센서화, 신호처리 고속화, 소형화 및 AI 기반 표적인식이 주요 기술 방향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RF·적외선 등을 결합한 다중모드 탐색기는 전자전 환경에서 표적식별 능력을 높일 수 있어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동시에 특수 반도체·센서·고신뢰 전자부품의 공급망 안정성이 생산능력 확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 영상처리, 표적추적, 유도전자 제어 및 RF 설계 역량을 확보한 전문 부품업체의 체계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술 개발 및 주요 업체 현황

정밀유도무기 탐색기는 표적신호를 수집하는 센서부와 이를 분석하는 신호처리부로 구분된다. RF 탐색기는 안테나 등 센서부에서 수신한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 표적 탐지·추적 정보를 생성하며, IIR 탐색기는 적외선 영상센서에서 획득한 영상정보를 분석해 표적을 식별·추적한다. 동사는 이러한 탐색기 신호처리기와 유도조종장치의 개발·공급을 핵심 경쟁력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고속 신호처리와 실시간 제어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도무기 체계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탐색기 부품 시장에서는 RF시스템즈가 RF 탐색기 안테나, 아이쓰리시스템이 적외선 영상센서를 담당하는 등 업체별 전문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반면 코츠테크놀로지는 방산용 싱글보드컴퓨터(SBC)와 임베디드 시스템을 공급해 동사의 신호처리·유도제어 분야에서 잠재적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동사는 LIG D&A 대상 탐색기 신호처리·유도조종장치 공급에서 기술·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높은 비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국내 주요 업체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 내용
코츠테크놀로지	• 방산용 싱글보드컴퓨터(SBC)와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공급하며, 신호처리·유도제어용 연산장치 영역에서 동사와 잠재적 경쟁기업
RF시스템즈	• 천궁-II 등 유도무기용 RF 탐색기 안테나와 레이더 관련 구성품을 공급하며, 동사의 신호처리부와 구분되는 RF 센서·안테나 분야 전문기업
아이쓰리시스템	• 유도무기용 적외선 영상센서·검출기를 개발·공급하며, 동사의 탐색기 신호처리부와 연계되는 적외선 센서부 전문기업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I. 기술분석

탐색·추적에서 유도제어와 전원까지 연결되는 정밀타격 전자기술

동사는 고속 영상처리와 표적추적 알고리즘, 정밀 유도조종 신호처리, RF-전원 제어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이를 탐색기·유도조종장치와 군용 전원장비에 적용하며 유도무기 개발부터 양산까지 연결되는 기술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 고속 영상처리와 표적 탐지·추적 기술

동사는 정밀타격 유도무기의 탐색기에 적용되는 고속 영상 신호처리 및 표적 탐지·추적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IIR 및 CCD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의 전처리, 영상 분할, 업스케일링·보간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Block Matching과 추적 필터링을 기반으로 해상·공중·육상 이동표적을 탐지하고 지속 추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동사는 탐색기의 영상처리 속도와 추적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고속 신호처리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유도무기의 표적 포착 및 종말단계 추적 성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동사는 현공·비공·해공 등 유도무기 체계에서 축적한 탐색기 개발 경험을 천궁-II와 L-SAM 등으로 확대하며 다양한 표적 및 운용환경에 대응 가능한 개발·공급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고속 접근 이동체의 거리 측정방법 및 레이더 특허(10-2641993)는 FMCW 신호를 활용해 도플러 영향에 따른 거리오차를 보정하는 기술로, 고속 이동표적에 대한 정밀 센싱 및 신호처리 역량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레이더 기반 탐지기술은 향후 대드론 요격체계와 다중모드 탐색기 등 차세대 유도무기 분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기반으로 판단된다.

■ 정밀 유도조종과 신관·제어 신호처리 기술

동사는 탐색기가 획득한 표적정보를 기반으로 유도탄의 비행을 제어하는 유도전자 및 유도조종 신호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유도조종장치는 탐색기 운용·통제, 표적탐지 신호처리, 전원분배, 입출력 제어 및 알고리즘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로, 탐색기에서 생성된 표적정보를 유도탄의 조종명령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동사는 이에 필요한 실시간 제어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현공·비공·해공·천검·천궁-II·L-SAM 등 다양한 체계의 탐색기 신호처리기와 유도조종장치 개발·공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궁3·L-SAM2·공대공 유도무기 등 신규 체계로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광대역 LFM 기반 다채널 신관 센서와 관련된 신호처리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초소형 안테나, 다중 안테나 구동증폭 및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고도와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체계개발 단계에서 고객 요구에 맞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유도무기 사업은 개발 이후 양산과 정비가 장기간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개발 참여 이력과 체계 적합성 검증 경험은 후속사업 진입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다수 무기체계의 개발 과정에서 실시간성·내환경성·고신뢰성에 대한 설계 및 시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전자부품 공급을 넘어 표적 탐지·판단·유도제어로 이어지는 유도무기 핵심 전자기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향후 AI 기반 표적인식과 다중센서 융합기술의 적용이 확대될 경우 영상처리 알고리즘과 유도제어 하드웨어를 통합할 수 있는 기술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RF-통신제어를 기반으로 한 방산·우주 시스템 확장 기술

동사는 통신장비 사업에서 축적한 RF 회로, 전력증폭, 필터·공진기 및 통신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방산·우주 전자장비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고주파 신호의 증폭·처리와 RF 회로 설계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통신장비 개발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전원 감시장치 및 시스템 특허(10-2078383)를 통해 장비의 부팅 단계에서 전원상태를 측정·감시하는 제어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통신제어 특허(10-2407215)를 통해 주변 수신전력에 따른 무선장비 출력제어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통신제어 특허(10-2755974)를 기반으로 분산형 무선장비의 데이터 처리 및 상향링크 통신 효율을 높이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RF·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중형위성 SAR 탑재체용 디지털 진단제어장치와 파형발생기, RF 신호처리기 개발을 수행하며 항공·우주 분야로 기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속회사 아데나는 군용 전원공급·제어장치와 전원모듈 사업을 통해 방산 전자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고 있다. 동사는 통신 분야에서 축적한 RF·디지털 제어기술과 방산용 신호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유도무기에서 위성·항공전자 분야까지 고신뢰 전자장비 개발 및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5. 동사 주요 사업부문별 제품



자료: 동사 IR자료(2025. 11.),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SWOT 분석



PEST 분석



IV. 재무분석

2분기 영업흑자 전환, 방산 수주 인도로 수익성 회복 진입

동사의 2025년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805.3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영업손실 16.4억 원을 나타내었다. 2026년 반기에는 매출액 367.9억 원, 영업손실 1.5억 원을 시현하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흐름을 나타내었고, 2026년 2분기에는 영업이익 20.3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였다.

■ 2025년 매출 805.3억 원, 수출 확대 속 완만한 성장

동사는 유도무기용 신호처리장치와 군용 전원공급장치를 공급하는 방산사업, 기지국·중계기용 전력증폭기와 철도차량 표시기 등을 공급하는 통신사업, 보청기 유통 등 기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5년 연결 매출은 국내 매출 688.6억 원과 수출 매출 116.7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매출액은 2024년 780.4억 원에서 2025년 805.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반기 누적 매출액은 36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하였다.

■ 영업손실 16.4억 원에서 2026년 2분기 흑자 전환

2024년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0.6억 원 증가한 780.4억 원을 기록하였으며(매출액증가율 0.1%), 영업이익은 5.0억 원 감소한 18.5억 원, 당기순이익은 70.4억 원 감소하며 64.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내었다(영업이익률 2.4%, 순이익률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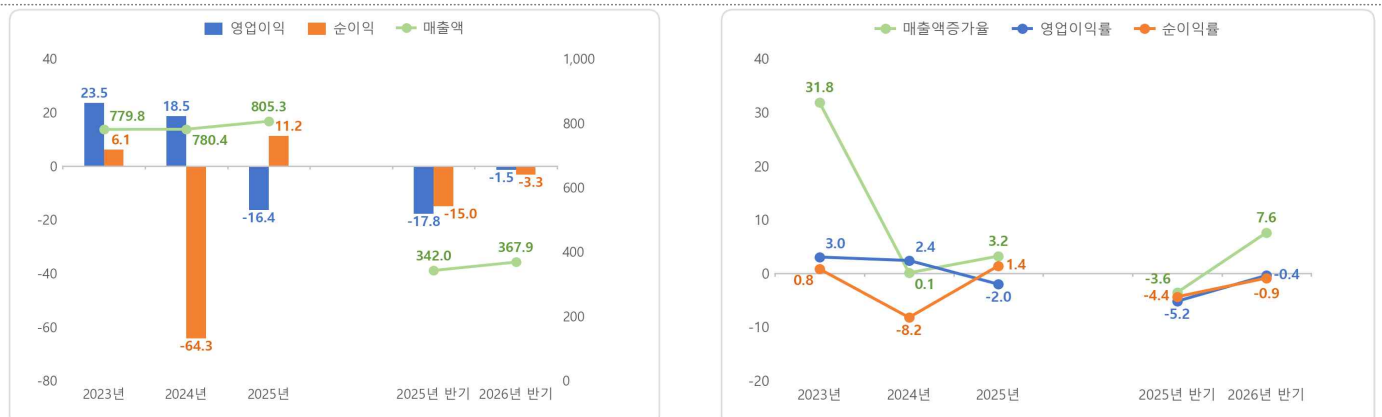
2025년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4.9억 원 증가한 805.3억 원을 기록하였으며(매출액증가율 3.2%), 영업이익은 34.9억 원 감소하며 16.4억 원의 영업손실을 나타내었고, 당기순이익은 75.5억 원 증가한 11.2억 원을 나타내었다(영업이익률 -2.0%, 순이익률 1.4%).

2026년 반기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9억 원 증가한 367.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매출액증가율 7.6%), 영업손실은 16.3억 원 축소된 1.5억 원, 당기순손실은 11.7억 원 축소된 3.3억 원을 나타내었다(영업이익률 -0.4%, 순이익률 -0.9%).

2026년 2분기에는 매출총이익 63.7억 원과 영업이익 20.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7.8억 원의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하였다. 판매비와관리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구조에서 납품이 집중된 분기에 이익이 확대되는 영업 레버리지가 확인된다.

그림 6.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총자산 1,068.4억 원으로 확대, 유동비율 197.2%로 단기 지급여력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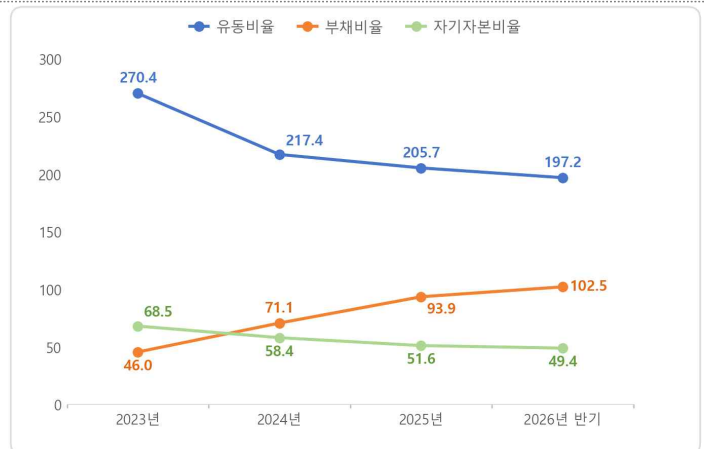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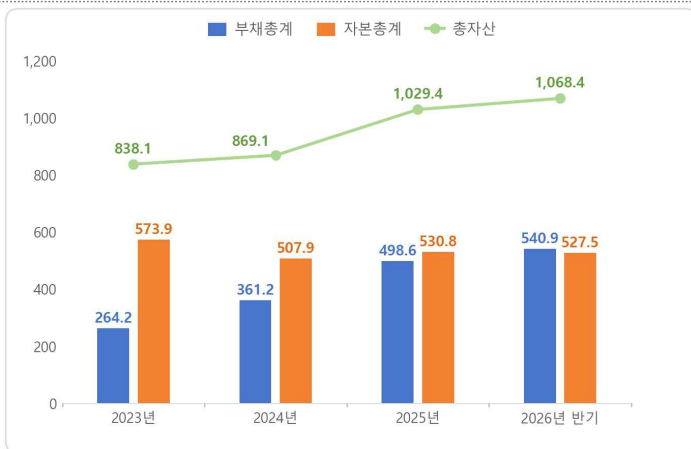
2024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31.0억 원 증가한 869.1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97.0억 원 증가한 361.2억 원, 자본총계는 66.0억 원 감소한 507.9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53.0%p 하락한 217.4%, 부채비율 25.1%p 상승한 71.1%, 자기자본비율 10.1%p 하락한 58.4%).

2025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160.3억 원 증가한 1,029.4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137.4억 원 증가한 498.6억 원, 자본총계는 22.9억 원 증가한 530.8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11.7%p 하락한 205.7%, 부채비율 22.8%p 상승한 93.9%, 자기자본비율 6.8%p 하락한 51.6%).

2026년 반기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203.6억 원 증가한 1,068.4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169.0억 원 증가한 540.9억 원, 자본총계는 34.6억 원 증가한 527.5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9.9%p 하락한 197.2%, 부채비율 27.0%p 상승한 102.5%, 자기자본비율 7.6%p 하락한 49.4%).

그림 7.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3.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반기	2026년 반기
매출액	779.8	780.4	805.3	342.0	367.9
매출액증가율(%)	31.8	0.1	3.2	-3.6	7.6
영업이익	23.5	18.5	-16.4	-17.8	-1.5
영업이익률(%)	3.0	2.4	-2.0	-5.2	-0.4
순이익	6.1	-64.3	11.2	-15.0	-3.3
순이익률(%)	0.8	-8.2	1.4	-4.4	-0.9
부채총계	264.2	361.2	498.6	371.9	540.9
자본총계	573.9	507.9	530.8	492.9	527.5
총자산	838.1	869.1	1,029.4	864.8	1,068.4
유동비율(%)	270.4	217.4	205.7	207.1	197.2
부채비율(%)	46.0	71.1	93.9	75.5	102.5
자기자본비율(%)	68.5	58.4	51.6	57.0	49.4
영업현금흐름	-17.4	64.3	105.7	0.4	-7.4
투자현금흐름	-53.0	-4.1	-27.0	-12.9	-16.3
재무현금흐름	-133.8	-46.1	83.4	26.8	-25.6
기말 현금	105.5	119.6	281.6	133.9	232.3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2026년 실적의 주요 요인은 확보된 방산 수주의 인도 속도로 파악된다. 동사는 LIG D&A와 184.0억 원, 이라크 천궁 부품 84.6억 원의 공급계약을 2025년에 체결하였다. 수주잔액은 2025년 말 1,832.2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2026년 6월 말에는 2,053.6억 원으로 증가하여, 상반기 매출 전환 금액보다 많은 신규 수주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 부문은 통신 사업자의 투자에 의존하는 구조이고,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이 2027년 6G 도입 이후 설비 투자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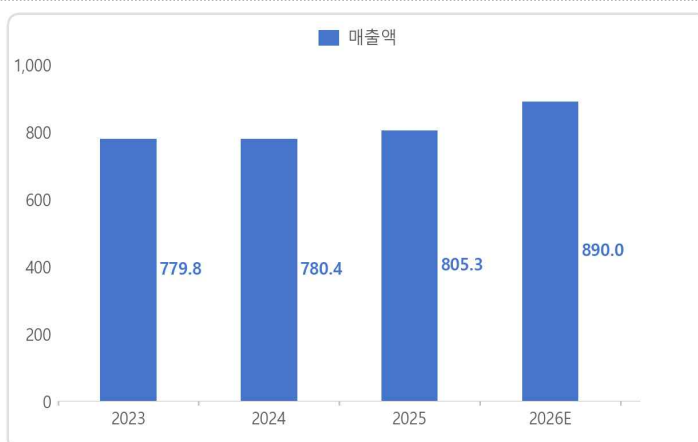
시장 측면에서 2026년 방위력개선비가 19조 9,653억 원으로 11.9% 증액되었고, 2027년 정부안인 22조 7,112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동사 매출은 이라크 천궁 부품·수출향 탐색기 신호처리부 등 수출향 계약을 포함한 수주잔액 증가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 측면에서 영업이익은 매출 규모에 따라 크게 변동될 것으로 평가된다. 반기 판매비와관리비가 100억 원 안팎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반기 인도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고정비 회식에 따른 이익률 개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현금흐름은 인도 전 생산 단계의 자금 소요가 반영되어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7.4억 원, 운전자본 변동이 -35.1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원재료가 191.0억 원에서 245.8억 원으로, 재공품이 85.7억 원에서 121.7억 원으로 늘어나 재고 축적과 맞물린 결과로 판단된다. 하반기 납품이 이뤄지면 재고의 매출 전환과 함께 현금이 회수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동사의 2026년 매출액은 확보된 수주의 하반기 인도와 반기 실적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0.5% 성장한 890억 원이 전망된다. 하반기에도 2분기와 같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이어지거나 진행 중인 수출향 계약의 납품이 앞당겨질 경우 전망치를 상회할 여지가 있으며, 반대로 수출향 탐색기 신호처리부 계약처럼 계약기간 종료일이 상대방과의 협의로 다시 이연되어 납품이 2027년 이후로 넘어갈 경우 하회할 수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판매비와관리비가 안정된 가운데 하반기 매출이 확대되면서 연간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8. 동사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	2024	2025	2026E
매출액	779.8	780.4	805.3	890.0

연도별 실적 및 전망

2026년 실적 및 전망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반기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및 추정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수출 레퍼런스 확대와 차세대 체계 개발이 맞물린 성장 구간

동사는 천궁-II·해궁 등 기존 유도무기의 해외 확산과 천궁3-L-SAM2-대드론 등 차세대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의 수출 확대가 후속 양산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위성·항공 전자장비까지 기술 적용처를 넓히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 방산 수주잔고 확대와 K-유도무기 수출 연계

동사의 최근 사업 변화는 방산부문의 수주 확대와 해외사업 연계 강화로 요약된다. 2026년 6월 말 기준 웨이브일렉트로닉스와 아테나의 합산 방산 수주잔고는 2,053.6억 원으로, 탐색기 신호처리기·유도조종장치와 군용 전원공급장치의 중장기 납품 기반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천궁-II·해궁의 해외 수출 확대와 비궁의 해외 진출 추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체계업체에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동사도 간접적인 수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체계업체의 중동·동남아 수출 확대와 함께 기존 양산품의 추가 공급뿐 아니라 수출형 사양에 대응하는 후속 개발 기회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방산사업은 체계개발 이후 양산과 유지보수가 장기간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기존 체계의 생산 확대와 후속 수출계약은 동사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 차세대 유도무기와 위성·항공전자 분야로 적용처 확대

동사는 기존 유도무기용 탐색기와 유도조종장치에서 천궁3, L-SAM2, 대드론 및 공대공 유도무기 등 차세대 체계로 참여범위를 넓히고 있다. 영상·RF 기반 표적 탐지와 추적, 고속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차세대 유도무기뿐 아니라 위성 SAR 탑재체와 항공전자 분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중형위성용 SAR 디지털 프런트엔드 제어기와 파형발생기 개발 경험은 기존 방산 신호처리 기술이 우주·항공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기동 항공기용 영상 안정화 기술과 항공전자 플랫폼용 데이터 집중장치 등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적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 향후 신규 체계 개발 참여가 양산사업으로 연결될 경우 방산 전자부품 포트폴리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통신 기반 기술과 방산 중심 사업구조의 재편

동사는 이동통신 RF 장비와 중계기 사업에서 축적한 고주파·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방산사업을 확대해 왔다. 2026년 상반기 방산 매출은 연결 매출의 약 82%를 차지해 통신부문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종속회사 아테나의 군용 전원공급·제어장치 사업이 연결 방산 포트폴리오에 더해지면서 탐색·유도 분야 중심이던 사업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 통신사업은 RF 전력증폭기, 필터, 중계기 및 네트워크 장비를 중심으로 기존 기술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5G 고도화와 6G 투자 재개가 중장기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사는 방산부문의 장기 수주 기반과 통신에서 축적한 RF 기술을 결합해 유도무기·위성·항공전자 등 고신뢰 전자장비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웨이브일렉트로(095270)

■ 최근 뉴스 및 향후 전망

☐ 프롬프트 :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
“검증된 탐색기·유도조종 기술과 다수 유도무기 공급 이력을 바탕으로 K-방산 수출 확대를 후속 양산으로 연결하는 정밀타격 핵심부품 기업.”

- 출처 : Claude

증권사 투자 의견(하단)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신한투자증권	-	-	2026.04.23
탐방노트: 찾았다, 또 다른 방산+통신주			

시장 정보(주가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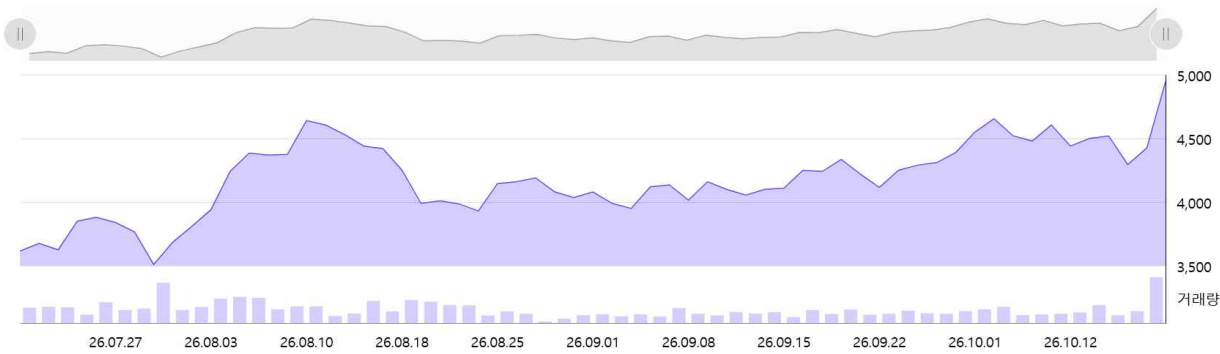
095270 코스닥

4,955 ▲530 +11.98%

단위 : 원, 주, % | 기준 일자 : 2026.10.19

전일	4,425	고가	4,965	거래량	164,168 주
시가	4,425	저가	4,405	거래대금	794 백만원

1주일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자료: NICE Bizline(2026.10.19.)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웨이브일렉트로	X	X	X